

신라 이야기 문학의 특성 -원효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 춘 호*

〈 차 례 〉

- | | |
|------------------|----------------|
| 1. 서론 | 나. 원효의 깨달음 이야기 |
| 2. 원효 이야기 문학의 특성 | 1) 깨달음의 과정 |
| 가. 원효의 탄생 이야기 | 2) 깨달음의 시현(示顯) |
| 1) 가계내력에 나타난 상징성 | 3. 결 론 |
| 2) 출생과정에 나타난 상징성 | |

1. 서 론

신라는 진한(辰韓) 12국 중 하나인 사로국(斯盧國)이 인접 소국들을 병합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체제를 정비하여 이룩한 나라이다. 한반도에서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갖춘 초기의 세 나라 즉 고구려 백제 신라 중 그 권역(圈域)과 제도, 인적 규모 등에서 가장 작고 뒤늦은 신라가 세 나라를 통일하여 도합 천여 년에 가까운 통치기간을 가진 나라로 존립하였다.

이러한 신라에서 살던 신라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남겨 놓은 이

* 경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2 문학과 언어 (제23집)

야기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주제이다. 그 간의 역사적인 연구에 의해 신라의 국가적 특성에 대하여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 국가의 성립과 통일의 역량, 문화의 성숙 등에 대한 다각도의 고찰이 있었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본고를 전개하고자 한다.¹⁾

신라사람이란 신라에 살던 그리고 사는 사람이다. 이 신라는 통일 전에는 지금의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곳이고 통일 후에는 대동강 이남지역을 가리키지만 그 중심은 경상도 지방에 있었기에 신라사람이라면 이 지역에 연고를 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라사람들의 이야기 문학에 대한 자료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수이전』 일문(逸文), 『화랑세기』, 『해동고승전』 등의 문헌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천년이 지난 지금 이 지역에서 수집되는 구비자료에서도 그 편린을 살펴 볼 수 있다.

신라사람의 이야기 문학은 많은 작품들이 전승되고 있어 그 특성을 들어내는데 어려움이 많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천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나라를 이루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의 변화가 있었다. 서라벌을 중심으로 한 육부사람들에서 비롯된 신라사람은 가야사람을 포괄하게 되고 삼국통일 후에는 신라 고구려 사람도 용납하였다. 그러하기에 신라사람에 의한 이야기 문학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방편으로 삼국 통일 전후 시기를 살다 간 원효(617-686) 이야기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서 신라 이야기 문학의 특성의 일단(一端)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원효 이야기는 원효의 삶에 대한 사실(史實)적인 기록도 있고, 사실(事實)로 인식되는 것도 있지만, 원효의 위대성에 걸맞는 많은 이야기 문학이 생성되어 전승되어 오고 있다. 원효 이야기가 생산자에 의해 사실(史實)의 기록으로 전해 오더라도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서사적인 문맥과 허구적인 의미로 인해 수용자에게는 이야기 문학으로 여겨져 계속하여 확대 재생산되어 왔다.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8·9. 탐구당, 1998.

본고에서는 현전하는 원효 이야기를 생산과 수용 양측면에서 중층적(重層的)으로 분석 논의하면서 원효 이야기의 총체적인 해석을 통해 신라 이야기 문학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원효 이야기 문학의 특성

원효는 삼국 통일기를 전후하여 생존하였던 신라 고승으로 통일의 과정에서 분열된 한(韓)민족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면서, 당시 귀족중심으로 신봉되던 불교를 민중들에게까지 확대하여 화쟁사상으로 통일이념을 제시하였다. 원효는 당시의 사상적 추이가 중국 지향인 것을 극복하고 민족 자주의 사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 생애를 바쳤다. 그러한 과정에서 22부 100여권의 방대한 저술을 남겼으며, 그 저술들에서 밝힌 것들을 몸소 실천하고자 노력한 인물이다. 그가 지은 『금강삼매경약소』는 중국에 전해져 세존 당시의 불보살(佛菩薩)들이 지은 논장(論藏)만큼 훌륭하다고 평가받아 『금강삼매경론』으로 불린다.

원효의 행적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의 국내자료 뿐 아니라 『송고승전』 등 중국에 전해지는 자료도 많이 현전(現傳)하고 있다. 이들 문헌적 자료에는 원효의 학문적 업적 뿐 아니라 수행승(修行僧)으로서의 신통한 행적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역사적 자료 또는 『고승전』 등의 불교적 자료이지만 원효의 행적이 신비롭게 형상화되어 있어 당대인들의 원효에 대한 인식태도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야기 문학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원효는 위대한 사상승(思想僧)이요 민중의 어리석음을 일깨운 교화승(教化僧)이며, 교화의 방편으로 수단과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무애행(無碍行)을 행한 연희승(演戲僧)이며 시가승(詩歌僧)으로서의 그 모습이 확인된다.²⁾ 문헌에 기록된 원효전승의 고찰을 통하여 원효라는 인물의

2) 설화를 통한 원효연구는, 김영태의 「전기과 설화를 통한 원효연구」(『불교학보』 17

4 문학과 언어 (제23집)

삶이 당대인은 물론 오늘날에까지 전승되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원효는 걸출한 삶을 살았기에 그의 행적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국내외의 문헌에 기록되어 전한다. 이들 문헌에 전하는 원효 이야기는 몇 유형으로 정리 분석되었다.

특히 조동일은 원효 이야기를 27종의 문헌에 전하는 50여 항의 기록과 8종의 구비기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먼저 기록된 이야기가 후대에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 이야기의 형성과 변모를 탐색하였다.³⁾

〈출생〉: 출생에서 시작해서 출가해서 승려가 되기까지의 내력

〈교우〉: 의상을 제외한 동시대 다른 인물과의 관계

〈의상〉: 의상과의 관계

〈중국〉: 중국가다가 되돌아 온 내력

〈금강〉: 금강삼매경론의 유래

〈관음〉: 관음보살을 만난 내력

〈공주〉: 요석공주와 관계해서 설총을 낳은 행적

〈진화〉: 물을 뺀 불을 끈 이적

〈변신〉: 여러 모습으로 변신한 이적

〈소반〉: 소반을 던져 승려들을 위기에서 구출한 행적

〈가무〉: 노래부르고 춤추며 돌아다닌 내력

〈이적〉: 자루만 보내 동냥하고, 최닝궐을 제거하는 등의 이적

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80)와 「현전설화를 통해 본 원효대사」(『불교사상사론』, 민족사, 1992)의 논문 이래 김태준(「원효전의 전승에 대하여」, 『어문논집』 7·8집, 전남대, 1985)과 사재동(「원효불기조의 문학적 연구」, 배달말 15호, 배달말학회, 1990), 조동일(「설화에 나타난 원효의 모습과 그 의의」, 『원효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김상현(『역사로 읽는 원효』, 고려원, 1994), 조춘호(원효전승의 종합적 고찰, 『어문학』 64집, 한국어문학회) 등의 선행 연구가 있으며, 본고의 작성에 이들 논저의 도움을 크게 입었다.

3) 조동일, 앞의 논문

이러한 분석은 원효 이야기를 종합하여 정리하고 형성과 변모의 의미를 파악한 의의는 있지만 원효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의 생성과 전승 및 이야기가 보여주는 원효의 삶에 대한 이해와는 다소의 거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원효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세분하지 않고 그의 삶과 관련 지어 구분하면 탄생 이야기와 깨달음 이야기, 그리고 중생교화 이야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즉 성(聖)스러운 탄생과 비범한 깨달음의 과정, 민중의 눈높이에서의 교화활동 등으로 정리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가. 원효의 탄생(誕生) 이야기

『삼국유사』 「원효불기」조의 기록 가운데 '원효의 출생설화'와 관계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聖師元曉 俗姓薛氏 祖仍皮公 亦云赤大公 今赤大淵側有仍皮公廟 父談捺乃末 初示生于押梁郡南今章山郡佛地村北 栗谷娑羅樹下 村名佛地 或作發智村 俚云弗等乙村 娑羅樹者 諺云 師之家本住此谷西南 母既娠而月滿 適過此谷栗樹下 忽分產 而倉皇不能歸家 且以夫衣掛樹 而寢處其中 因號樹曰娑羅樹 其樹之實亦異於常 至今稱娑羅栗 古傳 昔有主寺者 給寺奴一人 一夕饑粟二枚 奴訟于官 官吏怪之 取栗檢之 一枚盈一鉢 乃反自判給一枚 故因名栗谷 師既出家 捨其宅爲寺 名初開 樹之旁置寺曰娑羅 師之行狀云 是京師人 從祖考也 唐僧傳云 本下湘州之人 按麟德二年間 文武王割上州下州之地 置歙良州 則下州乃今之昌寧郡也 押梁郡本下州之屬縣 上州則今尙州 亦作湘州也 佛地村今屬慈仁縣 則乃押梁之所分開也 師生小名誓幢 第名新幢 幢者俗云毛也 初母夢流星入懷 因而有娠 及將產 有五色雲覆地 眞平王三十九年 大業十三年丁丑歲也 生而穎異 學不從師 其遊方始末 弘通茂跡 具載唐傳與行狀 不可具載 唯鄉傳所記 有一二段異事” 『삼국유사』 권4. 의해 제5

「원효불기」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원효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 성씨(姓氏)인 설씨(薛氏), 조부인 적대공(赤大公)과 그의 사당이 있는 곳인 적

대연(赤大淵), 부모의 집이 있던 불지촌(佛地村), 원효가 출생한 마을인 울곡(栗谷)과 그 곳에 있던 나무인 사라수(娑羅樹) 및 그 나무의 열매인 사라울, 원효를 잉태하며 곧 태몽과 출산 시 나타난 신비현상 등 위대한 성인인 원효의 탄생에 걸맞는 다양한 상징이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가계 내력에 나타난 상징성과 출생에 따른 상징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신라인의 시조인 박혁거세 탄생이야기와 불교의 교조인 석가모니 탄생이야기의 종합체인 이원적(二元的)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1) 가계(家系) 내력(來歷)에 나타난 상징성

원효의 성씨는 설씨이다. 설씨는 『삼국유사』 권1, 기이, 「신라시조 혁거세왕」조에 보면 진한 땅의 여섯 촌 가운데 고야촌(高耶村)의 촌장인 호진(虎珍)에서부터 시작되었다.⁴⁾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제1, 「유리나사금(儒理尼師今)」조에서도 역시 유리왕 9년에 유리왕이 6부의 이름을 고치고 성을 주었는데, 명활부(明活部)를 습비부(習比部)로 바꾸고 설씨 성을 주었다고 하였다.⁵⁾ 이로 볼 때 설씨는 신라 시조왕 박혁거세를 맞이할 때 참여한 육부 촌장 중의 한 명인 호진공이 시조이니, 곧 신라 건국에 참여한 중심세력의 성씨 집단이다. 그러므로 원효는 신라의 혈맥을 이어받은 정통성을 가진 신라인의 후손이다. 이는 원효의 탄생이 신라 시조왕인 박혁거세의 출생과정 및 출생상징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한다. 원효 탄생의 이적성(異蹟性)에는 박혁거세 탄생의 모티프를 차용하고 있다. 더욱이 조부의 명호(名號)가 잉피공(仍皮公) 또는 적대공(赤大公)이라함과 조부의 사당(祠堂)이 있는 곳이 적대연(赤大淵) 옆이라고 함은 원효의 탄생이 단순한 일 개인의 출생이 아니고 신라 건국 시조의 혈통을 이은 위대한 신라인의 탄생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4) 『삼국유사』 권1 「신라시조 박혁거세」조

“六日鳴活山高耶村 長曰虎珍——”

5)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제1, 「유리이사금」조.

“明活部爲習比部 姓薛”

원효의 조부의 이름이 잉피공, 또는 적대공이라고 하였다. 적대공이라 한 '적대(赤大)'에서 신라의 전통성을 발견된다. 적대(赤大)는 우리말로 '붉힌'이다. 붉은 것의 제일 큰 것이 '적대(赤大)'이고 보면 적대는 '태양'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신라의 시조왕 박혁거세를 다른 이름으로 불거내왕(弗矩內王)이라고 했다고 하니, 이와 견주어 보면 적대공은 태양공이라는 암시성을 갖는다. 적대공을 추모하기 위하여 후대인이 묘(廟)를 건립했는데 그 묘가 적대연(赤大淵) 옆에 있다고 이야기는 설명하고 있다. '연(淵)'의 이름을 적대라고 한 것은 적대공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 볼 때, '연'과 '적대'의 함수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은 원천과 기원이며, 모든 존재의 가능성의 모태이다. 물은 잠재적 형질의 전체를 상징하고 있다. 물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형태의 현현(顯現)이라는 우주발생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구조의 문화유형 가운데에서도 물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성립된다면 이 설화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나 사후의 재생을 보증해 주는 잠재성을 갖는다.⁶⁾

곧 원효 탄생은 신라 구원(救援)의 조짐(兆朕)이요, 적대공 가문의 혈통적 영광임을 암시한다. 적대연의 물을 매개로 하여 이 설화를 분석하면 원초적으로 우주발생적 행위는 신라의 백성과 적대공의 후예를 위하여 물의 창조적 생산기능을 영원히 약속받게 된다. 적어도 신라의 시조왕 박혁거세의 혈통이 하늘에 있다면 적대공의 혈맥도 당연히 연관지어지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하늘이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천손민족(天孫民族)들은 크고 붉은 태양이 상징적으로 하느님이라 생각했다. 우주발생론에 있어서는 불거내왕(弗矩內王)이나 적대공은 모두 같은 사상적 배경에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하느님의 탄생이 원수적(原水的) 물이라 했을 때, 불거내왕인 혁거세왕의 생명수는 동천(東泉)이 될 것이고, 적대공의 탄생수(誕生水)는 적대연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성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 원효의 탄생 이야기이다. 이에 대하

6) 엘리아데(李恩奉譯) : 종교형태론, 1979, 208.쪽

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원효는 그의 부모가 살던 곳이 불지촌(佛地村)이었고, 부모가 불지촌의 북쪽에 있는 울곡(栗谷)에 들일을 하러 갔다가 산기(産氣)가 있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버지가 입었던 옷을 나무에 걸어서 주변을 가리고 그 안에서 출산을 하여 들판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이 불지촌은 그 당시에 발지촌(發智村) 또는 불등을촌(弗等乙村)이라고도 하였다고 한다. 이로 볼 때 불지촌의 불지는 불교 수입 후의 영향으로 명명(命名)된 것이고 오히려 고행(古形)은 발지(發智)일 것이다. 이 발지가 현대어로 '밝다, 붉다'와 그 의미가 있다면 '적대(赤大)'나 '불거내(弗矩內)'의 원형(原型)도 이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적대연(赤大淵)이란 이름이 원효의 조부와 관련성이 있다는 앞의 해석과 같은 논지에서 보면 발지(發智) 불지(佛地)는 분명히 원효의 탄생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혈통적 맥락을 의식적으로 원효탄생의 연기(緣起)로 삼는 것은 원효가 하늘의 자손임을 자부하고 민족적인 혈통의 계승을 역사적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한 당대 사람들의 사유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이야기의 모티브는 물의 개입으로 하여 그 민족의 시간적 역사성을 인정받게 된다. 만물 생성의 순환적 구조는 물의 리듬에 의해서 구성된다. 즉 원효에 대해 직접적인 인연이 아닌 조부의 사당에 대한 언급과 그 사당의 위치가 적대연 가에 있다는 언명은 원효탄생의 이원적인 필연성을 드러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이로 볼 때 원효의 탄생은 '밝다'계(系)로 하늘의 상징인 남격(男格)과 창조적 요소의 물의 상징인 여격(女格)의 생산적인 음양 조화에 의해서 어룩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신라인의 고유 사고에 그 원형(原型)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출생과정에 나타난 상징성

원효의 탄생은 일상적인 탄생이 아님은 이미 살펴보았다.

원효는 출가승으로 신라의 정신을 대표하는 불교의 지도자이다. 이러한 영웅적 탄생에는 반드시 이상성(異常性)이 수반된다. 그래서 원효의 탄생에는 이적(異蹟)이 부가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신성성(神聖性)이요 불교적인 영험성(靈驗性)이다. 원효의 탄생은 태몽과 출생 장소 및 출생 시의 기이함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원효의 탄생에 관련된 이적은 『서당화상비』와 『삼국유사』에 전한다. 두 기록의 표현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비슷하다.

『삼국유사』의 기록은 “처음에 어머니의 꿈에 유성이 품 속으로 들어오더니 이내 태기가 있었다. 해산하려 할 때는 오색 구름이 땅을 덮었다”⁷⁾고 했다. 이러한 태몽은 일상적인 인물이 아닌 위대한 인물의 출생에 쉽게 살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원효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장은 그의 어머니가 별이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낳았다고 하며, 김유신은 그의 아버지가 별이 내려오는 꿈을 꾸었고 이 태몽과 관련하여 이름도 유신으로 지었다고 전한다.

이처럼 태몽과 출생 시의 신이한 증험뿐 아니라 출생장소도 기이하다. 원효가 태어난 곳은 집안이 아니라 집에서 동북쪽에 있는 불지촌 북쪽 밤나무골(栗谷)의 밤나무 아래였다. 밤나무에 남편의 옷을 걸어 가리고 그 속에 누워 해산하여 그 밤나무를 사라수(娑羅樹 : 사라 비단을 건 나무)라 하고 그 나무 열매를 사라울(娑羅栗)이라 했다. 그런데 이 사라울의 열매는 보통 밤나무와는 달리 그 밤 알 한 틀이 승려의 바루에 가득 찰만큼 컸다고 한다.⁸⁾

이 이야기의 사실여부는 확인할 수 없더라도 원효의 탄생과 관련있는 나무를 이렇게 묘사한 의미는 무엇일까.

조동일은 이러한 출생사실의 기록을 “어머니가 나무 밑에서 갑자기 해산을

7) “初母夢流星入懷 因而有娠 及將產 有五色雲覆地”.

8) 『삼국유사』 「원효불기」조 참조.

해서 아버지가 옷을 나무에 걸고 거처를 마련했다는 것은 사실로서 뿐만 아니라 설화로써도 동시에 타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특이하게 태어난 미천한 인물"에 대한 표현으로 의미를 해석했다.⁹⁾ 그러면서 이 탄생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승되지 아니하고 『삼국유사』에만 수록되어 있는 이유로, "사실인지 설화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 어느 쪽이라도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렵다. 계속 기록에 올릴만한 의의가 없는 사소한 사실이거나, 이해하지 못해 전승하기 어려운 설화이다. 그런데도 『삼국유사』에서 기록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설화였는데, 그 의미가 망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삼국유사』에다 올릴 때 이미 의미가 거의 망각되었으므로, 납득하기 어려운 서술을 했다고 보아 마땅하다" 하였다.¹⁰⁾ 과연 조동일의 지적처럼 일연이 후대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서술'을 했을까.

이 기록만을 보더라도 원효는 하늘의 점지로 태어나게 되었고, 사라수라는 나무 아래에서의 출생에 오색 구름이 땅을 덮는 축복이 있었다. 이러한 출생의 모습은 부처님 즉 석가 세존의 탄생설화와 흡사하다. 마야부인이 해산을 위해 친정인 코울리성으로 가던 도중 립비니 동산에 이르러 갑자기 산기(産氣)를 느껴 장막을 친 무우수(無憂樹) 아래에서 태자를 낳았고 그 때 하늘에서 상서로운 광명이 갓 태어난 아이를 향해 뻗었다고 한다.¹¹⁾

원효의 출생이 석존의 탄생과 비견되는 구체적인 예는 원효의 생가가 있던 곳이 불등을촌(弗等乙村) 즉 불지촌(佛地村) - 부처님 마을이라 불렸으며, 태어난 곳에 있던 밤나무를 사라수라 했던 점이다. 사라수는 Sala를 음사(音寫)한 것으로 의역(意譯)하면 무우수와 뜻이 같다.¹²⁾ 따라서 원효는 석존과 같은 무우수 즉 사라수 아래서 태어난 것이다. 이처럼 원효의 출생을 석존의 탄생과 같이 승화시키고자 했던 후대인(일연 등)의 뜻이 투영되어 이러한 기록이 남

9) 조동일 앞의 논문 321쪽.

10) 조동일 위의 논문 321쪽.

11) 『팔상록』, 운주사, 1994. 참조

12) 김지건, 『해동사문 원효상 소묘』, 『원효연구논총』, 국토통일원, 1987. 120쪽.

겨졌을 것이다.

한편 이 사라수에 열리는 밤이 대단히 커서 한톨이 승려의 그릇인 바루에 가득 찰 정도였으며, 고려 후기까지 이 밤을 사라울(사라밤)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 사라울에 대해 『삼국유사』 「원효불기」 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因號樹曰娑羅樹 其樹之實 亦異於常 至今稱娑羅栗 古傳 昔有主寺者 給寺奴一人 一夕饑栗二枚 奴訟于宮 宮吏怪之 取栗檢之 一枚盈一鉢 乃反自判給一枚 故因名栗谷”

이 사라울이 유별나게 컸던 것이 원효가 태어나기 이전부터였는지, 그 이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원효와 관련되어 전승된 것만은 사실이다. 이 사라울의 의미는, 배고픈 대중에게 풍성한 물질적 은혜를 베풀어주듯 밝은 지혜의 빛을 비추어 많은 사람을 일깨워 주었던 원효의 일생을 상징하면서 출생에서부터 위대한 삶으로 윤색코자 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원효의 출생장소가 집안이 아니라 드러난 공간 즉 대지 위라는 것은 자라서 가정에서 생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큰 일을 할 기 위해 집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이러한 암시와 같이 원효는 '탄생하자 총명하고 뛰어난 학문을 스승없이 하게 되었'으며, 출가하여 승려가 되어 '덕업(德業)이 날로 새로워져 사방에 퍼져나가는 나라'인 신라를 빛낼 것을 맹세한 큰 기둥(誓幢)이었고, 어둠을 밝힐 불덩이로 희망찬 삶을 여는 새벽(元曉)이었던 것이다.

나. 원효의 깨달음 이야기

원효는 그 탄생으로부터 성인으로서의 증험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를 일컫는 대표적인 이름인 원효도 시단(始旦) 즉 새벽이라 하였다. 이 새벽이라는 의미는 어둠을 헤치고 광명을 가져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처음이라는 시간적인 의미도 내재되어 있다. 원효라는 이름에는 신라에 큰 깨달음을 일

깨운 자라는 의미와 함께 처음 그러한 일을 한 자라는 의미도 담겨있다.

이러한 해석은 원효가 성장하여 출가하게 되고 출가한 후 자기가 살던 집을 절로 만들어 초개사(初開寺)라 하였고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절을 짓고 사라사(娑羅寺)라 했다는 기록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즉 초개는 '처음 열었다'라는 자전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는 중국의 영향을 벗어난 신라의 자주적 사상의 실천을 처음 연다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암시와 상징처럼 원효는 '탄생하자 총명하고 뛰어나 학문을 스승없이 하게 되었'으며, 출가하여 승려가 되어 살던 집을 고쳐 초개사를 짓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는 사라사란 절을 지었다. 초개사는 대대로 세습하여 내려온 집을 고쳐 절로 만든 것으로 이러한 행위에 구체적인 원효의 출가의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초개사는 원효가 출가하여 처음으로 만든 신성 공간으로 신라를 불국토로 하여 정토가 되게 하겠다는 염원의 구현이 이 초개사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초개사는 불국토를 향해 처음으로 문을 연 신라의 절이며, 사라사의 사라는 신라의 국호인 사로(斯盧) 사라(斯羅)와 동음동의 이표기어(同音同意 異表記語)로 사라사는 부처님의 재생을 이어받은 신라의 절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즉 원효의 깨달음 이야기는 지금까지 알려진 토감우숙(土龕寓宿)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이전 출생 시부터 그 깨달음의 그릇(法器)이 암시되어 있었고 출가하여 절을 창건하고 나아가 수행하면서 있는 요석궁 과공주와의 결연과 교화활동과 행위에서 보여지는 이적(異蹟)들에서도 깨달음의 경지를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원효의 깨달음 이야기를 깨달음의 과정과 깨달음의 시현(示顯)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깨달음의 과정

원효는 성장하여 철이 든 나이가 된 초채지년에 출가하여 불제자로 수행을 하게 된다.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의 탄생과 비견된 원효의 탄생에서부터 원효의 출가는 예견되어진 당연한 것이었다. 출가한 나이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으나 초채지년의 의미가 '상투를 틀 나이'이므로 15-6세 경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출가 후 자기가 살던 집을 초개사라는 절로 바꾸고, 태어난 곳에다 사라사라는 절을 지은 것은 지금까지의 삶은 모두 청산하고 불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강한 의지의 반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비록 성스러운 탄생으로 삶을 시작하였지만 스스로 행동하고 삶의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주목되는 어떠한 행위도 언급이 없다. 원효의 삶에서 주목되는 자의적인 첫 행위는 출가하여 불제자가 된 것이며 나아가 스스로 수행할 거처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원효가 특정한 스승에게 나아가 배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자기를 알아주는 인연 있는 고승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그러하기에 원효의 오도(悟道) 즉 깨달음은 스스로 만들어 간 것이다. 즉 원효가 의상과 더불어 중국에 가서 공부하려다가 중도에서 깨우치고 돌아온 것도 원효의 깨달음의 정도가 깊어지는 한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럼 깨달음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천주요(天柱謠)와 설총의 출생

출가 수행하던 원효는 상례(常例)를 벗어나 거리에서 일명 천주요(天柱謠) 즉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 주겠는가? 나는 하늘 받칠 기둥을 찍으려다(“誰許沒柯斧 我斫支天柱”)”라는 노래를 부르며 다녔다. 이 노래에서 자루와 자루없는 도끼, 하늘 받칠 기둥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루는 그 생김이 남자의 생식기를 암시하는데, 이 자루가 보통의 자루가 아니라 하늘 기둥을 찍을 도끼자루이다. 그만큼 힘세고 강한 능력의 소유자임을 과시하며, 하늘기둥을 만들 수 있는 자루 없는 도끼 즉 남편없는 여인을 구하는 노래였던 것이다. 당시 아무도 원효의 이 노래 뜻을 알지 못했는데, 태종(당시 왕?)이 이 뜻을 짐작하고는 요석궁 파공주와 인연을 맺게 하였다.

그런데 원효는 출가승려로서 왜 파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노래를 불렀으며 스스로 파계하였을까. 태종이 이 노래의 뜻을 알고 궁리(宮吏)를 시켜 원효를

찾아 요석궁으로 맞아들이게 했지만, 원효 스스로 그 인연을 이룰 것을 알고 자기가 연출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有寡公主 勅宮吏覓曉引入 宮吏奉勅將求之 已自南山來 過蚊川橋(沙川 俗云年川
又蚊川 又橋名榆橋也)遇之 佯墮水中濕衣袴 吏引師於宮 袴衣曬曝 因留宿焉 公主果
有娠 生薛聰” 『삼국유사』 원효불기 조

자루없는 도끼를 구하여 하늘 받칠 기둥을 짚겠다는 원효의 의지는 요석궁과(寡) 공주와의 결연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늘 받칠 기둥’이 무엇일까. 원효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노래를 들은 태종은, “이 스님께서 아마 귀부인을 얻어 훌륭한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구나. 나라에 큰 현인이 있으면 그보다 더 이로움이 없을 것이다”고 생각하고 두 사람의 결연을 지시한 것이다. 이로 볼 때, 태종은 자루 없는 도끼는 귀부인으로, 하늘 받칠 기둥은 훌륭한 아들이며 나라의 큰 현인으로 이해하였다. 이 같은 기대처럼 공주가 임신하여 낳은 아이가 곧 설총이며 그는 신라 십현(十賢) 중의 한 명으로 추앙받았던 ‘나라의 큰 현인’이었다.

그런데 원효에게도 하늘 받칠 기둥이 설총과 같은 훌륭한 아들을 낳는 것을 의미했을까. 만약 그러했다면 설총의 출생 후 원효의 삶은 설총의 양육에 치중 되었어야 했지만, 원효의 행적은 그러하지 않고 오히려 파계로 인한 고행을 자처하고 만행(漫行)을 하였다. 이로 볼 때 원효가 의미한 ‘하늘 받칠 기둥’은 훌륭한 자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고 큰 것이 아닐까.

김영태는 천주요를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주겠소? 내가 하늘 고운 기둥을 잘라 버리겠소”라고 해석하면서 이는 “내가 이제 낡은 전통과 허례허식의 형식에 끌려가는 풍조와 거짓 꾸며진 관념에 오염된 오늘의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잘라 베어서 그 하늘을 허물어 버리겠으니 바른 이해와 진실한 판단으로 성원하고 포용해 주시오”라고 파악하기도 하였다.¹³⁾

13) 이러한 해석은 김영태, 「위대한 지성인 원효」(『삼성현의 생애와 학문』, 경산대출판

원효가 파계하고 요석궁 과공주와 결연하여 낳은 설총은 '하늘 받칠 기둥'으로 그 기대에 걸맞게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聰生而睿敏 博通經史 新羅十賢中一也 以方音通會 華夷方俗物名 訓解六經文學 至今海東業明經者 傳受不絕”. 『삼국유사』 원효불기 조

설총의 이러한 행적은 천주요를 부르며 '자루 없는 도끼'를 구하던 원효의 욕구를 충족시켰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은 설총의 출생 후 원효의 행적에 잘 나타나 있다. 설총의 출생 후 원효는 속인의 옷을 입고 스스로 '소성거사(小性居士)'라 일컬으며, 광대들이 가지고 노는 박을 얻어 그것을 『화엄경』의 "일체의 무애인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에 의거하여 무애호(無碍瓠)라 하고 무애가를 지어 부르며 증생을 교화하였다. 이처럼 원효는 무애호를 가지고 많은 촌락에서 무애가를 노래부르고 무애회를 춤추며 교화하고 음영(吟詠)하면서 돌아 다녀서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들까지도 모두 부처님을 알게 되고 모두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된 것이다. 곧 원효의 이러한 교화는 당시 귀족들만의 신앙체였던 신라불교를 신라민중 모두의 신앙체로 확산시켰다. 원효가 의미했던 '하늘 받칠 기둥'은 바로 이러한 민중교화의 불교, 진정한 민족불교로서의 자리매김을 이룩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더 나아가 자신은 불교로써 대중교화를 이룩하고, 아들인 설총으로 하여금 경서와 역사서로써 대중교화를 이룩하여, 이들 부자의 노력으로 지상극락을 완성시키고자 한 것이 바로 '하늘 받칠 기둥'이 아니었을까. 출생 후 함께 생활하지 못했지만 그 추구하는 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깨달아 실천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애정과 신뢰의 상징인 분황사의 원효 소상(塑像)이 이러한 해석을 더욱 튼튼하게 뒷받침한다.

“既入寂 聰碎遺骸 塑眞容 安芬皇寺 以表敬慕終天之志 聰時旁禮 像忽迴顧 至今

부, 1996. 31-32쪽)의 내용에서 크게 시사 받았다.

猶願矣” 『삼국유사』 원효불기 조

(나) 토감우숙(土龕寓宿)

한편 원효가 활동한 시대는 7세기 중반으로 국내적으로는 삼국의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과 통일전쟁의 수행, 그리고 통일 후 삼국을 아우를 수 있는 사상의 확립이 차례로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많은 지식층들이 중국에 유학을 가서 앞선 문물과 지식을 배우고자 하였다. 원효도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되어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 가고자 하였다. 두 차례 모두 의상과의 동행이었다. 첫 번째 입당기록은 『삼국유사』의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의상전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遂與元曉道出遼東 邊戍邏之爲謀者 因閉者累旬 僅免而還(事在崔侯本傳及曉師行狀等) 永徽初 會唐使舡有西還者 寓載入中國.

이 기록의 역사적 고증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¹⁴⁾ 원효가 입당하고자 한 동기가 잘 나타나 있다. 즉 원효는 '부처님의 교화(敎化)'를 보고 배워 신라 땅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겠다는 꿈을 가졌기 때문이다. 1차 입당에 실패한 후 원효는 의상과 다시 입당을 도모하여 길을 떠나 당항성에 이르러 장마를 만나 비를 피하기 위해 겪은 일화가 바로 원효를 오도(悟道)하게 했고 토감우숙 이야기로 알려진 내용이다.

이 토감우숙 이야기는 중국측 기록인 『종경록』과 『송고승전』 『지월록』 등에 자세하다. 『삼국유사』에서는 이 기록은 '최치원이 쓴 원효전'과 누가 쓴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은 '원효 행장'에 있다고 했고,¹⁵⁾ 또 "그 유학한 내력과 도통해서 한 여러 행적은 당전(唐傳)과 행장에 갖추어져 있어 옮겨 실지 않

14) 김상현, 『역사로 읽는 원효』, 고려원, 1994. 74-76쪽. 의상의 입당은 1차가 영취 초년(650년)이고, 2차는 용삭 원년(661년)으로 파악하는 것이 정설이다.

15) 『삼국유사』 「의상전교」조 참조.

는다"16)고 하였다.

『송고승전』에 전하는 이 이야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與元曉法師同志西遊行至本國海門唐州界 計求巨艦 將越滄波 倏於中途遭其苦雨遂
依道旁土 龕間隱身 所以避飄濕焉 迨乎明旦相視 乃古墳骸骨旁也 天猶礙深地且泥塗
尺寸難前逗留不進 又寄埏甃之中 夜之未央俄有鬼物爲怪 曉公歎曰 前之寓宿謂土龕而
且安 此夜留宵託鬼鄉而多崇 則知心生故種種法生 心滅故龕墳不二 又三界唯心萬法唯
識 心外無法胡用別求 我不入唐 却携囊返國 湘乃隻影孤征誓死無退. 『송고승전』 권
4. 「당신라국의상전

이 기록을 통해 보면 원효는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항구로 가던 중 심한 폭우를 만나 이를 피하기 위해 고분에 머물면서 마음의 작용에 의하여 두려움과 편안함을 느끼게 됨을 깨달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원효의 오도(悟道) 계기가 옛 무덤 속에서 귀신이 나타나 놀라게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원효의 오도가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신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는 『종경록』과 『임간록』의 기록에 의해 알려졌기 때문이다.17)

『임간록』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唐僧元曉者 海東人 初航海而至將訪道於名山 獨行荒陂 夜宿塚間 渴甚 引手掬於
穴中得泉甘涼 黎明視之觸骸也 大惡之 盡欲嘔去 忽猛省大嘆曰 生心卽種種法生 生滅
卽觸骸不二 如來大師曰 三界唯心 豈欺我哉 遂不復求師還海東 疏華嚴經 普教圓頓
『林間錄』, 『卍續藏經』 2編乙 4책 78쪽.

16) 『삼국유사』 「원효불기」조 참조.

17) 『임간록』은 宋 覺範慧洪(1071-1128)이 지었고 『宗鏡錄』은 延壽(904-975)가 지었으며, 『송고승전』은 988년에 이루어졌기에 이들 기록 중 『종경록』의 기록이 『송고승전』의 기록보다 27년이 앞선다. 따라서 김영태(전기와 설화를 통한 원효연구)에서 제기한 『임간록』의 기록의 신빙성 의심은 『임간록』과 유사한 내용이 『송고승전』보다 앞 선 『종경록』에 기록되어 있어 재고가 요청된다. 김상현, 「원효행적에 관한 몇 가지 신자료 검토」, 『신라문화』 5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8.

이들 자료 중 『종경록』 『임간록』의 기록은 원효가 중국에 와서 겪은 일이라고 하여 이 기록의 신빙성을 낮추나, 원효가 이 일을 경험하고 오도한 곳이 무덤이라는 것은 동일하다. 『송고승전』에서는 고분을 단순히 토굴인 중 알았을 때는 편안하게 잠잘 수 있었는데, 그 곳이 실제로 해골이 나뿐구는 고분임을 알았을 때는 귀신이 나타나는 등 뒤숭숭하여 몹시 불안함을 겪었다고 했다. 『임간록』에서는 간밤에 샘물인 줄 알고 마실 때는 달고 시원했는데, 날이 밝아 보니 그 물이 시체가 썩은 물 또는 해골에 고인 물임을 보고는 토할 것 같은 역겨움을 느꼈다고 했다.

김영태의 지적처럼 『송고승전』의 기록이 다소 합리적이지만, 『임간록』의 기록도 문학적 운색이 가미된 것으로 파악하면 무리가 없다. 오히려 해골물을 마시고 오도했다는 것이 보다 더 감동적이다. 이들 기록은 원효의 실제 경험 여부에 관계없이 위대한 행적을 남긴 원효의 오도계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원효의 오도체험과 그 감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날이 밝아 간밤에 토굴로만 생각했던 그곳이 해골이 있는 옛무덤 속임을 알았을 때 불안과 공포가 엄습했다는 것이나 간밤에 달게 마셨던 물이 해골에 고인 물임을 알고 토할 만큼이나 역겨웠다는 것은 원효의 오도계기를 각색하고 있는 데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원효가 경험했던 대상은 어두운 밤이나 환한 아침에도 변하지 않는 같은 것이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원효 자신의 마음이었고 인식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원효는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토굴과 무덤이 돌이 아니로구나,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무엇을 따로 구하리오'라고 하면서 '나는 당나라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돌아왔다. 원효는 당시 동방세계의 문화중심지였던 중국에의 구법유학(求法留學)의 필요성을 버릴 수 있었다.

즉 토감우숙 이야기에서 원효는 '광대무변한 우주(三界)는 오직 마음에서 비롯되고 삼라만상 모든 존재(萬法)는 오로지 마음의 알음을 통해 존재하는데 당나라까지 가서 무엇을 찾고 배우겠는가'라고 한 것이다. 중국측 기록에 전하

는 이 이야기는 원효의 자주성을 높이 평가한 것이며 나라 안에서 진리를 체득하고 또 널리 백성을 일깨운 원효의 구법활동과 교화활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2) 깨달음의 시현(示顯)

불교에서 깨달음은 완전한 깨달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만법(萬法)의 진리를 터득하고 그 만법을 두루 전파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것으로 해석된다. 즉 돈오(頓悟) 후 점수(漸修)를 통해 자신의 수행은 물론 주변의 교화를 통하여 깨달음의 경지를 높여나가야 하는 것이다. 원효에게 있어서 깨달음을 얻은 후 그 깨달음의 시현은 주변의 몽매(蒙昧)한 백성들을 교화하는 것이었다.

(가) 『금강삼매경론』의 찬술

깨달음의 시현은 중생을 교화할 경전의 찬술과 해석으로도 나타난다. 원효의 경전찬술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이 『금강삼매경론』의 찬술이다. 『금강삼매경론』은 『금강삼매경』에 대해 원효가 처음으로 주석을 한 것으로 처음에는 『금강삼매경소』라고 하였다. 소(疏)는 부처님 경전에 후대 승려나 학자가 그 경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붙히는 주석서를 의미한다. 원효가 『금강삼매경』에 대해 소(疏)를 지어 널리 반포하자 이를 본 중국 승려들이 이는 부처님 당시의 보살과 십대제자들이 이룬 론(論)과 같은 경지의 저술이라고 평가하면서 『금강삼매경론』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금강삼매경론』의 찬술과정은 『송고승전』에 처음 보이고 기록도 가장 자세하다. 이후의 중국측 기록은 이 기록을 축약 인용한 것에 불과한 듯하고, 『삼국유사』에도 소략하게 언급하면서 자세한 것은 『송고승전』에 있다고 하였다. 먼저 『삼국유사』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亦因海龍之誘 承詔於路上 撰三昧經疏 置筆硯於牛之兩角上 因謂之角乘 亦表本始

二覺之微旨也 大安法師排來而粘紙 亦知音唱和也

『금강삼매경론』을 각승이라 부르는 까닭을 '소(疏)를 지으면서 붓과 벼루를 소의 두 뿔 사이에 두고 지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각(角)은 각(覺)을 암시하고, 소의 두 뿔은 본각(本覺)과 시각(始覺)의 이각(二覺)을 암시함을 알 수 있다. 본각은 온갖 유정(有情)과 무정(無情)에 통한 자성(自性)의 본체로서 갖추어져 있는 여래장 진여(如來藏眞如)이다. 곧 우주 법계의 근본 본체인 진여의 이체(理體)이다. 시각(始覺)은 일체의 유정(有情)과 비정(非情)에 통하여 그 자성의 본체로서 갖추어져 있는 여래장 진여에 대하여 도로 그 본각이 수행의 공덕을 가자(假藉)하여 깨달음을 증명한 각(覺)을 말한다. 그러므로 본각과 시각이 각체(覺體)는 다르지 않으나 다만 지위가 같지 않아 본각과 시각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¹⁸⁾ 『삼국유사』의 기록에 비하여 「송고승전」의 기록은 구성을 가지고 있을만큼 극적이고 자세하다. 그 전문을 옮기기가 장황하므로 단락을 들면 다음과 같다.¹⁹⁾

- ㄱ) 신라의 왕비가 심한 증기를 앓아 낫지 않았다.
- ㄴ) 산천에 기도하니, 무당이 말하기를 사람을 외국에 보내 약을 구하라고 하였다.
- ㄷ) 약을 구하러 중국에 가던 사신이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노인을 만났다.
- ㄹ) 사신이 그 노인을 따라 용궁에 들어가 용왕을 만났다.
- ㅁ) 용왕이 용궁에 있는 「금강삼매경」을 가져다가 대안법사가 편차를 바로잡고 원효대사가 풀이하면 왕비의 병이 낫는다고 하였다.
- ㅂ) 30장 정도의 산경(散經)을 주었다.
- ㅅ) 바다를 건널 때 마(魔)가 끼일까 염려하여 사신의 장단지를 찢어 그 경을 넣은 다음 봉하니 장단지가 아무렇지도 않았다.

18) 김영태, 「신라에서 이룩된 금강삼매경론」, 『불교학보』 25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88 참조.

19) 이 단락의 구분은 조동일 앞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 o) 이상한 차림을 하고 바라를 치면서 시장 한복판에서 '대안(大安) 대안' 외치고 다니는 대안법사에게 부탁해 경의 편차를 맞추었다.
- 스) 원효가 고향에 있다가 이 경을 받아 보고 이 경은 본시(本始) 이각(二覺)으로 종(宗)을 삼는다고 하면서 소의 두 뿔 사이에 붓과 벼루를 놓고 수레를 타고서 다섯 권의 소(疏)를 지었는데 도적이 훔쳐가 다시 세 권을 지었다.
- 츠) 원효가 황룡사에서 왕과 백관(百官), 승려들에게 이 경을 강설(講說)할 때 찬양하는 말이 공중에서 있었다.
- 카) 왕이 백좌 인왕경 대회(百座仁王經大會)를 열 때 원효가 초청받지 못한 것에 대해 여러 승려들을 질타하였다.

이 설화는 겉으로 보이는 원효는 형편없는 승려인 듯 하나 실제로 대단한 승려임을 말하고, 『금강삼매경』이 세상에 출현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 카)에서 보듯이 원효는 지난날 백고좌법회에서 자기가 제외된 것을 염두에 두고 “전에 서가래 백개를 구할 때는 끼이지 못하더니 지금 대들보 하나 노릇은 홀로 한다”²⁰⁾고 했다.

전에는 평가받지 못하던 원효가 이 금강삼매경론의 찬술로 인하여 홀로 우뚝한 고승으로 평가 받았다. 그러하기 위하여 이 경의 출현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신비로운 곳에서 왔다고 하였다. 즉 당시 세상을 벗어난 곳으로 가장 친근하던 용궁을 설정하고 신비를 더하기 위해 사신의 장딴지를 갈라 그 속에 감추어 가지고 왔다고 했다. 이는 다섯 권의 소(疏)를 지었다가 도둑맞은 사실과 결부하여 보면 아직도 시기와 질투를 하는 이가 있어 그에 대응하여 치밀한 준비 즉 장딴지에 감추고 와야 했으며, 흩어져 뒤섞여 놓은 경전이어서 이를 대안만이 편차를 지을 수 있게 하였고 또 원효만이 그에 대한 소를 쓸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원효의 능력이 뛰어나고 그 경전이 대단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갖추어진 장치라 여겨지며, 이러한 일을 통해 원효가 왕비의 불치병을 낫게 했다는 것은 아주 설득력 있는 설정이다.

20) “昔日採百緣時雖不預會 今朝橫一棟處唯我獨能”. 『송고승전』 권4, 「원효전」.

사실 당시 신라에서 원효나 대안의 행적은 기득권을 가진 승려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이 시기의 원효의 행적에 대해 『송고승전』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發言狂悖 示跡乖疎 同居士入酒肆倡家 若誌公持金刀鐵錫 或製疏以講雜華 或撫琴以樂禪宇 或閤閤寓宿 或山水坐禪 任意隨機 都無定檢”. 『송고승전』 권4, 「원효전」

이를 보면 원효는 도무지 일정한 규범도 없이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로 이상한 행동을 일삼았다. 원효는 승려로서 마땅한 행동을 버린 떠돌이였고 이단자였기에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하기에 국왕이 연 백고좌 법회에도 끼일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행위는 일상적인 시각(視覺)으로 봤을 때 논의되는 것이고 대안이나 용광과 같은 선각(先覺)의 경지에 있는 이들은 원효의 행위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곧 이 각승찬술(角乘撰述) 이야기는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각자인 원효의 실체를 일깨운 것으로 파악된다.

(나) 관음보살의 친견

이 이야기는 670년(문무왕 10년) 의상이 중국 유학에서 돌아와 낙산의 관음굴에서 관음보살 진신(眞身)을 친견하고자 지성으로 기도하면서 널리 알려지고 정착된 관음신앙²¹⁾에 의해 이루어진 이야기다. 이에 대한 기록은 중국측 기록에는 전하는 바가 없다.

중국에서 돌아온 의상은 관음보살이 살고 있다는 해변의 굴에서 두 칠일 동안 간절하게 관음 진신을 친견코자 기도하니 말이 있어, “좌상(座上)의 산꼭대기에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아 날 것이니 그 땅에 불전을 마땅히 지어야 한다. 의상이 말을 듣고 굴에서 나오니 과연 대나무가 땅에서 솟아 나왔다. 이에 금

21) 김상현, 『신라화엄사상연구』, 민족사, 1991, 113-118쪽.

당을 짓고 불상을 봉안²²⁾하였다. 이에 원효도 의상의 이야기를 듣고 이 곳에 와서 예를 하고 관음을 친견코자하여 화신(化身)으로 현현(顯現)한 관음을 친견하였지만 관음인 줄 몰랐으니 애석하기 그지 없다. 이에 대한 『삼국유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因名其寺曰洛山 師以所受二珠 鎮安于聖殿而去 後有元曉法師 繼踵而來 欲求瞻禮 初至於南郊水田中 有一白衣女人刈稻 師戲請其禾 女以稻荒戲答之 又行至橋下 一女洗月水帛 師乞水女酌其穢水獻之 師覆棄之 更酌天水以飲之 時野中松上有一青鳥 呼曰休醞和尙 忽隱不現 其松下有一隻脫鞋 師既到寺 觀音座下又有前所見脫鞋一隻 方知前所遇聖女乃真身也 故時人謂之觀音松 師欲入聖廟 更覩眞容 風浪大作 不得入而去. 『삼국유사』 권3, 탑상 제4,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동일이 불교설화의 승고와 비속을 다루면서 자세하게 검토하였다.²³⁾ 위의 기록을 통해 보면 의상은 관음보살을 친견한 듯하나 온전한 것은 아니었고, 원효는 관음보살의 화신(化身)을 두 번이나 만났으나 관음보살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의상은 두 칠일이나 정성을 기울여도 정성이 부족해서인지 관음보살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만남의 간접적인 증거만을 전해 주었다. 원효는 헛된 분별심과 망상을 버리지 못한 탓에 관음보살을 만나고도 관음보살인 줄 몰랐다. 이 이야기에서는 다른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위대한 원효가 매우 왜소하고 초라하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일까. 원효가 관음보살을 친견하고도 관음보살을 몰라 본 것을 드러내고자 함인가, 아니면 원효가 관음보살의 화신이었던 여인과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돋보이게 하려는 점일까. 이는 원효의 삶과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원효는 천주요를 부르며 '하늘 바칠 기둥'을 낳아 국가에 크게 기여했으며,

22) 『삼국유사』 권3, 탑상 제 4, 「낙산이대성관음정취조신」, “更齋七日乃見眞容謂曰 於座上山頂 雙竹湧生 當其地作殿宜矣 師聞之出屈 果有竹從地湧出 乃作金堂塑像而安之”.

23) 조동일, 「불교설화에서의 승고와 비속」,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1990.

몸을 낮추어 중생 교화에 진력해 누구나 '나무아미타불'을 염송케 했다. 원효는 진속(眞俗)을 넘나들면서 상황에 맞는 방편으로써 중생을 교화하고 진리를 추구하였다. 원효가 파랑새로부터 제호 맛도 모르는 어리석은 중이라는 힐책을 들었던 것도 염정(染淨)과 진속(眞俗)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진리를 몸짓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원효는 누구보다도 진속의 대립을 벗어난 진속원융(眞俗圓融)의 이론과 실천을 강조했던 사실을 되새기게 한다.

한편 이 이야기에서 원효의 활달한 성격을 살펴 볼 수 있다. 벼를 베는 여인에게 다가가 벼가 잘 익었는가고 말을 건네고, 빨래하는 여인에게는 물을 청하는 모습 등이 그러하다. 앞서 살펴본 요석궁 과공주와의 결연에서도 파악되었지만, 파계 후 무애호(無碍弧)를 희롱하며 친촌만락(千村萬落)을 돌아다니며 중생을 교화하던 원효의 큰 모습을 보는 듯도 하다.

(다) 적반구중(擲盤救衆)과 천불도통(千佛道通)

이 이야기는 처음에는 중국측의 기록에만 전하고 있었으며, 그 후 조선시대에 들어와 『묘향산 적반대 사적기(妙香山擲盤臺事跡記)』²⁴⁾ 등에서 살펴볼 수 있고, 최근에 수집된 구비자료에서 확인된다. 최근의 구비자료는 중국측 기록을 읽은 이들이 전파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

- (ㄱ) 천성산(千聖山) 내원사(內院寺)의 유래²⁵⁾
- (ㄴ) 금산(錦山)의 보리암(菩提庵)²⁶⁾
- (ㄷ) 득도한 도통골²⁷⁾

24) 『조선사찰사료』 하, 「묘향산적판대사적기」(1879), 162-163쪽.
 25)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천성산 내원사 안내판, 김영태(「전기와 설화를 통한 원효 연구」 불교학보 17)의 논문에서 소개
 26)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금산 보리암 주지 양혜당(梁慧堂, 40, 남)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평민사, 1989.
 27) 경상남도, 『향토문화지』 1989

- (ㄹ) 원효대사와 천성산²⁸⁾
- (ㄴ) 망해암(望海庵)²⁹⁾
- (ㄷ) 옥련정1, 옥련정 2(8-13, 경남 울주군 편)³⁰⁾
- (ㄸ) 원효대사와 지명유래(8-13, 경남 울주군 편)

『송고승전』에서 “또 소반을 던져 대중을 구하였다(或擲盤而救衆)”라고 언급하고 있어 이 이야기가 일찍부터 형성되어 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구체적 상황의 적시(摘示)가 없어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묘향산 척반대 사적기』에서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이 이야기는 원효의 구함으로 인해 목숨을 건진 천 명의 중국승려가 원효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우리 나라에 와서 수행하였다는 화엄별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³¹⁾

이 이야기는 원효의 위대함과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진 원효의 명성을 확인시켜 주는 이야기이며, 이러한 이야기의 형성은 직접적 또는 원효의 저술을 통해 간접적이든, 원효에게 가르침을 받은 많은 중국 승려들에게 작은 나라인 신라의 승려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받을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 해석되기도 한다.

3. 결 론

이상에서 원효 이야기를 통한 신라 이야기 문학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원효는 위대한 사상승이요 민중의 어리석음을 일깨운 교화승이며 많은 저술을 남긴 문학승이었다. 문화와 종교, 사상 등 거의 모든 것을 중국에 의지하고 있던 당시 신라에서 원효는 유일하게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사상활동을 실천한

28) 주 28과 같은 책

29) 『안양문화』 5호 1986.

3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31) 김영태, 「전기와 설화를 통한 원효 연구」, 참조.

인물이며 귀족층과 평민층의 화합을 도모케 한 위대한 실천수행가이었다. 또한 삼국의 통일과정에서 서로 반목하고 분열되어 혼란한 시대적 분위기를 일신(一新)하여 하나로 통일된 민족정기를 확립할 화쟁사상을 제시하고 실천하여 통일의 뿌리내림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로 신라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하기에 원효에 관련한 문헌과 구비전승되는 이야기가 많이 산발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적인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 가운데는 원효의 삶과 행적을 신비롭게 형상화한 것도 상당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러한 기록들 가운데 문헌 전승으로 원효 이해에 중요한 탄생이야기와 깨달음 이야기를 중심으로 원효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신라 이야기 문학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당시대인의 원효에 대한 인식과 기대심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원효 이야기 문학은 신라인이 가지고 있었고 계속적으로 견지하고자 했던 신성과 세속의 융화(融和), 고귀(高貴)·빈천(貧賤)의 불이(不二), 불교와 중국에 대한 자주적 인식 등에서 나아가 신라가 세계의 중심이며 불국토라는 긍지와 자부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선덕여왕과 지귀이야기·김유신 이야기·미추왕과 죽엽군 이야기·경문왕의 귀 이야기 등에서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며, 이들 이야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면 본고에서 원효 이야기를 통해 얻은 신라 이야기 문학의 특성이 보다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며 이는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밝혀가고자 한다.